

#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사회 교과의 융합 교재 제작과 수업 적용 방안 연구

－ 고등학교 체험 중심 독도 교재 제작과 한국사 학습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

안운호 대전한빛고등학교 교사

## 1. 머리말

현재 일본 정치인들에게서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 발언은 한·일 간의 복잡한 정치 외교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부터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 세력은 자국의 어려운 정치 상황이 대두될 때마다 영토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주권 침해 행위와 발언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였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또한 그 연장선 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했으며, 이에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sup>1</sup>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 현 의회는 독도를 침탈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해 ‘죽도의 날’ 제정 조례

\* 논문 투고일: 2020. 10. 17, 심사 완료일: 2020. 11. 16, 게재 확정일: 2020. 11. 25.

\* 이 논문은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渡部昇一 外, 2015, 『最新 一本史B(고등학교)』, 明成社, 295쪽.

를 통과시키고 이를 공포하였으며,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북방 영토와 함께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기술할 것을 공포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교육의 범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30일, 드디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수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다방면의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독도 교육에 관련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은 크게 한일 외교적 관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밝히는 연구를 비롯하여 독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연구,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개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한·일 외교적 관점에서의 독도 연구는 결국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 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에 영토라는 점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논문은 그동안 다수 발표되었으며<sup>2</sup>, 독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또한 독도 관련 내용 연구 및 변천 과정, 그리고 교과서 서술을 위한 방안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의 사실을 교육하고자 진행되었던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의 연구와 활동은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학생 중심·활동 중심의 구성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발전이 있었다.<sup>3</sup>

2 그동안에 발표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호동, 2005,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57~291쪽; 정병준, 2006,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학회, 3~16; 김태형, 200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52-3, 대한국제법학회, 103~124쪽; 김영수, 2018, 「일본 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 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2019, 「대학 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 242, 역사학회, 106~133쪽.

3 다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화경·노상래(2009),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50집, 284쪽; 송호열, 2011,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지리학회지』 21-3, 한국사지리학회, 17~36쪽; 김영수, 2012,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3, 동북아역사재단, 112~131쪽;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14-1, 한국평화연구학회, 243~262쪽; 김수희, 2013, 「초중고 역사교과서에서의 독도기술과 방향성 검토」, 『역사교육논집』 51, 한국역사교육학회, 43~78쪽; 남상규, 2016,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2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36쪽.

한편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는 학생이 독도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독도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개발의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으며<sup>4</sup>, 현재에는 정규 교과 및 범교과 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 기반 교재 개발이 진행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적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독도 교육은 단순히 앎을 위한 교육이 아닌 현실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독도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교과 별로 구분되어 진행된 그동안의 독도 교육도 교과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8년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획한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의 제작 과정과 한국사 학습에서의 사회 교과 융합 적용 사례를 통하여 그 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sup>5</sup>

## II. 고등학교 한국사 교재에서의 독도 내용 분석

독도 교육의 특성상 학습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은 영토 주권에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공간적 존립 기반 위에서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 고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화 된 독도 교육이 원

4 김혜진·서태열, 2019, 「초등학교 실천적 독도교육 방향 모색」, 『학습자중심교육학회지』 19-21, 학습자중심교육학회, 1123~1141쪽.

5 본 논문은 2018년에 제작 진행되고 2019년에 배포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의 제작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임을 밝힌다.

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 임의 역사적 연원을 알아야 한다.

셋째, 독도가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영토·영공·영해의 범위로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이 국민 사이에 Konsens로 확고히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독도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의 교수-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과거의 독도 교육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지식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독도를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지의 창의적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한국사 교과서와 학습 교재에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1.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분석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안에서 독도와 관련한 학습 내용은 주로 대한민국 영유권의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집중한 측면이 강했다. 이는 1945년 이후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운영된 1차 교육과정 중에는 중학교 교과서상에 제시된 전체 내용으로 ‘대한제국 말기에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거리로 인한 관리 관계라 핑계하여 독단적으로 독도(獨島 또는 三峰島)를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어서 독도 문제라는 부당한 문제의 실마리를 만들었다.’<sup>6</sup> 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3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사항이 이

6 역사교육연구회, 1961, 『중등 국사』, 문교부, 134쪽.

전과는 다르게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변화를 보였다. 즉 울릉도와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내용, 그리고 일본에 독도 불법 침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리에 위치한 부속된 섬으로, 울릉도가 신라 시대부터 우리 영토가 됨에 따라 독도도 우리 영토가 되었던 것이다. 조선 태종 때에 유민 방지를 위하여, 섬에 나가 살던 사람들을 본토로 옮겨 살게 하면서 울릉도의 관할이 소홀해졌고, 부속된 독도에 대한 관리도 자연 소홀해졌다. 그 후, 숙종 때 울릉도에 나갔던 안용복이 불법 침범한 일본 어부를 발견하고, 그들을 축출하고 일본까지 가서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은 몰래 와서 울릉도의 목재를 벌채하고 어업 활동을 하는 등 우리 국토를 침범하였다. 1881년, 울릉도 순찰에 나선 우리 관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일본에 항의하는 한편, 울릉도에 이민을 장려하고 관청을 두어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 강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던 것이나, 광복 후 다시 우리 주권 하에 들어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7</sup>

4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독도 관련 기술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독도에 관련한 내용이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독도가 조선 시대에 실질적인 조선의 관할이었다는 사실과 일본에 의해 불법 편입되었다는 점을 중·고등학교 교과 내용에서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계속성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편, 동해상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 나라 영토였다. 숙종 때 동래의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에 불법 침입해 온 일본 어부를 축출하고,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확인시킨 일도 있

7 이만열 외, 1981, 『중학교 국사』, 문교부, 250~252쪽.

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자,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일본에 항의하고(1881), 곧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하여 이주민을 보냈으며, 관리를 파견하였다. 그 뒤, 정부에서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도 관할하게 하였다(1900).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많이 이용되었다.<sup>8</sup>

5차와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에 특징은 분량상으로 이전보다는 간단하게 제시되었다. 과거의 교과서가 독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5차와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조선 시대와 19세기 내용을 분리하여 제시한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당시는 독도에 관련한 학습 내용이 한국사 교육에서 크게 부각 되지는 않는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5차와 6차의 교과서 서술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 학생 활동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여 서술이 간단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서술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예전과는 다른 변화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서술에서와 동일 하게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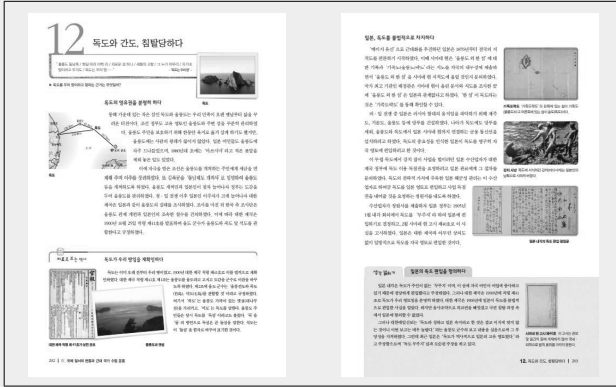
8 하현강 외, 1983, 『고등학교 국사(하)』, 문교부, 103쪽.

〈표 1〉 5차 ~ 7차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서술 비교<sup>9</sup>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일본과의 관계	…한편,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 나라 영토였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자, 숙종 때 동래의 어민인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을 울릉도로부터 축출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울릉도 개척을 위해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한편,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나라 영토였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자, 숙종 때 동래의 어민인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을 울릉도로부터 축출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울릉도 개척을 위해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7차 교육과정	
간도와 독도	…한편,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 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 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한편,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나라 영토였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 곳을 침범하자, 숙종 때 동래의 어민인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을 울릉도로부터 축출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울릉도 개척을 위해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에 편입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7차 교육과정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울릉도에 딸린 섬이었던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제국을 계승한 우리의 영토이다.		

2007~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이전보다는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대한제국 이후 일본의 독도침탈의 내용과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내용을 대폭 늘려 교과서에 수록하였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자료와 지도 등의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이 강화되었다. 특히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 구성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 중심의 내용 조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활동과제를 통한 독도학습의 다양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이전 교과서 구성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9 최몽룡 외, 1990, 『고등학교 국사(하)』, 문교부, 24쪽, 130쪽; 김두진 외, 1996, 『고등학교 국사(하)』, 교육부, 23쪽, 95쪽; 이명희 외, 2002,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104쪽, 113쪽.



(그림 1)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교과서 속 독도 관련 사례 10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독도 관련 학습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전달의 중심 일변도로 편성된 면이 강하였다. 물론 2007 교육과정 이후에는 근거 자료의 제시를 통한 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학습 활동의 수록에 변화는 있었으나, 앞서 제시한 4가지 원칙이 학습 활동 안에서 녹여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통합 교과적 학습 활동 면에서는 보완의 대책이 필요했다.

## 2. 독도 활동 교재의 내용 분석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발행한 초·중·고등학교 독도 교재는 학교 현장에서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다양한 학생 활동 사례를 제공하였다. 이 중 대표적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펴낸 독도학습 관련 교재는 총 30여 종으로 현재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부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증진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따라서 필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17·

10 왕현중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202~203쪽.

2018년에 배포된 ‘독도 바로알기’와 2018년 ‘독도체험활동지’ 교재<sup>11)</sup>의 내용을 살펴보았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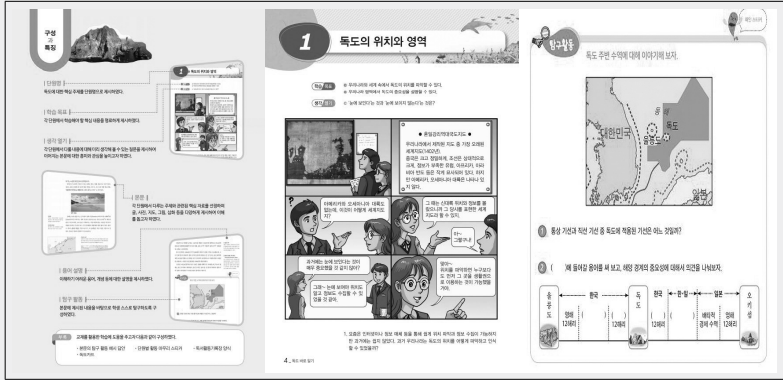
‘독도 바로알기’는 내용과 구성면에서 독도에 관련한 학습 활동을 초등 5개, 중등 8개, 고등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단원 구성은 각각 독도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일반사회 분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원 각각의 교과 분야에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주제와 활동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핵심 주제를 단원명으로 선정하고, 학습 목표로서 학습 활동을 통해 성취해야 할 핵심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학습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생각 열기’를 설정하여 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주제에 대한 학습 내용을 사진과 도표, 그림과 삽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교재의 중요한 학습 내용을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 시켰다는 점은 효과적인 측면의 장점이 많았다. 용어 해설의 측면을 본다면 각 내용의 우측에 어려운 용어를 해석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여 나갔으며, 탐구 활동을 적절히 제시하여 학생들이 학습 결과를 스스로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도 바로알기’ 교재는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의식 내에서 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식적 측면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 있었고, 학습 교재로서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11 주로 참고하여 분석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황인영 외, 2017, 『독도 바로알기(초등학교, 개정2판)』, 동북아역사재단; 양상진 외(2017), 『독도 바로알기(중학교)』, 동북아역사재단; 허준 외(2017), 『독도 바로알기(고등학교, 개정2판)』, 동북아역사재단; 김은희 외(2018), 『독도 바로알기(초등 3·4학년군)』, 동북아역사재단.

12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그동안 발행된 30여 종의 관련 교재 중 ‘독도 바로알기’와 ‘독도체험활동지’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교재의 개발이 본격적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전국 단위학교에 보급되었다는 점, 둘째, 사회과 융합을 기본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점, 셋째, 2018년 독도 교재 개발이 독도 바로알기 교재의 보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림 2〉 2017년 독도 바로알기 (허준 외, 2017)

그러나 기존의 ‘독도 바로알기’ 교재가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진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는 독도 학습이 학생들의 입시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학습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 안의 학습 내용의 심화 반복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통합적 입장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도 여전하였다.

물론 이에 대하여 2018년에 배포된 ‘독도체험활동지’는 학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독도체험활동지’는 그 구성에 있어 학생들의 독도 관련 체험활동을 ‘알고, 즐기고, 알리고(知樂告)’의 3가지 활동 구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르는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교재와 비교하여 큰 발전이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통해 독도 교육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재 구성이 독도체험에 집중되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통합 교과적 측면의 학습 구조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림 3〉 2018년 독도체험활동지 (남길수 외, 2018)

### III. 융합적 독도 교재의 개발<sup>13</sup>

교재 개발은 앞서 언급한 교과서와 교재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고등학교 교재 개발 또한 각 학교 급의 연구진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교재 구성의 대강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13 개발된 교재는 다음과 같다. 박기범 외(2019),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고등학교/중학교/초등 3·4학년/초등 5·6학년 - 총 4권)』, 동북아역사재단.

14 교육부(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교육부; 교육부,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 자료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 교육』, 7쪽.

15 독도 교육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시수를 부여하고 이를 학습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도를 단독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서 1학기~1년 동안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각 교과의 독도 관련 단원의 비중을 높이고 이에 대한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독도 교육 방향은 영토 주권 교육으로서 취지를 살리며 교과 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이미 2010년 '독도 교육 통합 위원회' 설치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통해 이루어진 독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범교과 학습 활동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로서의 독도 교육이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에 통합 교과적 학습 활동으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4</sup> 이에 교재는 다음의 원칙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활용이 용이한 웹 기반 활용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 학생들의 생활과 관심에 밀접한 체험 중심의 자기 주도형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 지식 전달 위주의 교과 분절적 교재를 벗어나 범교과적인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학습 활동의 연계성이 있는 구조적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sup>15</sup>

## 1. 교재 제작을 위한 구성 원칙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는 종적인 방법으로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칙을, 횡적인 방법으로는 통합성의 원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독도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sup>16</sup> 그동안 교과서와 교재에서 나타난 학습 내용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사·지리·일반사회 교과의 중요한 내용 지식은 계속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변화, 지속, 시대, 발전, 교류, 인과관계의 개념이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재의 편성을 진행하였다.

계열성 측면에서 교재의 제작은 학교급의 학습 활동을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재 제작 과정에서 3개 학교급의 4단계(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교재를 구성하고자 하였고, 내용의 측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초 개념 및 지식 형성과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생활 속 독도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확장되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의 전반적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sup>17</sup>

특히 계속성과 계열성 구현의 방법적 측면에서 교재에서는 환경 확대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환경 확대는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주어진 환경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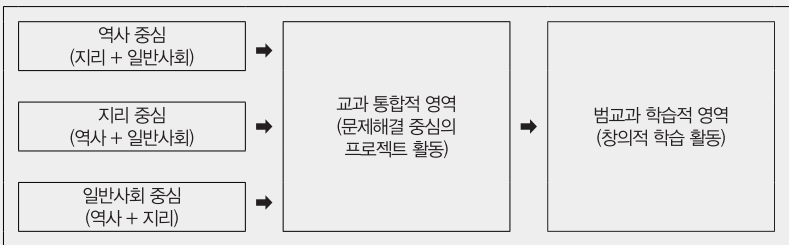
16 양호환 외, 2002,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7 신병식·최용규, 2010, 「초·중등 역사교육과정 계열화 방안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17-1.

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을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친근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회-국가-세계의 공간적 규모를 확장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지적 측면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인식범위가 점차 심화·확산되는 점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 확대적 접근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증진 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학습자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다만 역사교육에 있어 환경 확대의 방식은 시간성과 연계하여 이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재의 구성은 과거-현재-미래의 측면에서 시간 개념을 확대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편 통합성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배운 교과별 지식을 통합하여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교재는 각 교과 영역별 구성과 통합교과 영역 고려를 통하여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 범교과 영역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은 아래의 <표 2>의 과정에 의거하여 교재 구성을 계획하였다.

<표 2> 통합성 중심의 교재 제작



## 2. 자기 주도적 독도 교재의 주제 설정

교재 구성에 있어 주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어떤 방향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목표) 달성의 여부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선행학습과 경험의 정도를 통해 적합한 주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고,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 가능성과 흥미도 여부를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고등학교 독도 교재는 이전 학교급에서 학습 활동을 통해 익힌 여러 가지 사고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교재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중학교 교재 제작의 방향과 연속성 및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재 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017년도 독도 교재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3〉 교재 개발을 위한 주제 편성표

2017 독도 바로알기 교재의 주제	중심 영역	2019 개발 교재의 주제	중심 영역
1. 독도의 위치와 영역	지리영역	1. 자손 대대로 이어질 독도	역사 중심 (과거)
2. 독도의 지형		2. 우리 땅 독도의 아름다움	지리 중심 (현재)
3. 우리 땅 독도가 지니는 소중한 가치			
4. 옛 기록에 나타난 독도	역사영역	3. 우리 땅 독도의 활용	일반사회 중심 (미래)
5. 일본도 인정한 조선 시대의 독도		4. 독도 지키기 프로젝트	통합
6. 고지도 속에서 찾은 우리 땅 독도			
7. 근대의 독도와 일본의 독도침탈			
8. 광복 후의 독도	사회영역	5. 우리 땅 독도를 알립니다	범교과
9. 독도와 국제 관계			
10. 독도·동해 바로 알리기			

더불어 위 〈표 3〉과 같이 고등학교 독도 교재는 교과 영역에 알맞은 단위마다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전환해 시도하였는데 ‘학습 내용’의 측면에서 크게 5개 단원의 학습주제에서 연계가 가능한 활동을 3개 정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준

비를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기호 및 준비물, 유의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3. 자기 주도적 독도 교재의 내용 편성

설정된 주제에 의거한 내용 구성 체제는 기존의 독도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되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핵심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내용은 독도의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제공하고 있는 반면, 새로 개발한 교재는 주제 의식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프로젝트 중심의 학생 주도형 학습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전체 구성에서 보면 교재의 1~3 단원은 과거·현재·미래의 개념으로 기본적인 독도 관련 지식을 역사 중심·지리 중심·사회 중심적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하였으며, 4~5단원에 있어서는 통합적·범교과적 측면에서 지식·기능·태도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4〉 주제에 따르는 내용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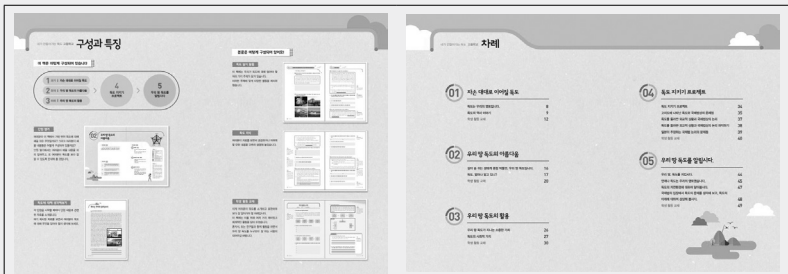
학교급	개발 교재의 주제	중심 영역	내용
고 등 학 교	1. 자손 대대로 이어질 독도	역사 영역	독도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하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독도 관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
	2. 우리 땅 독도의 아름다움	지리 영역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에 관련한 내용을 활용한 카드 자료를 제시하되, 역사적·문화적·생태학적 입장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함. 또한 독도 자원 수호를 위한 법률적·외교적 방안을 알아보도록 함.
	3. 우리 땅 독도의 활용	사회 영역	독도의 경제·사회학적 입장에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학생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지리적·역사적 측면에서 독도 활용의 사례를 찾아보도록 함.
	4. 독도 지키기 프로젝트	통합 영역	고지도를 활용하여 독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국제법 등의 관점에서 현재 독도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함
	5. 우리 땅 독도를 알립니다.	범 교과 영역	1~4까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독도를 잘 알릴수 있는 방법, 특히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제 제시와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가도록 함

구성상 교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재 구성의 일체성과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제작하였다. 즉 디자인 측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재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학교급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차별성 또한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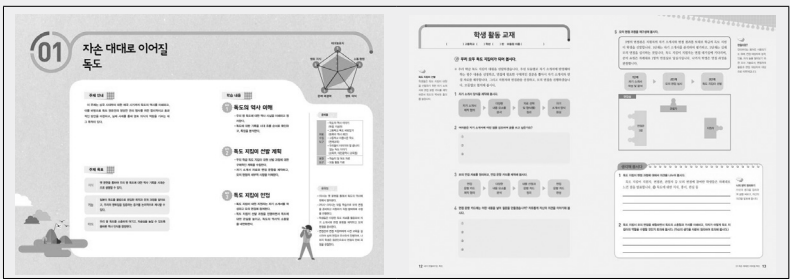
그리고 학습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학습 안내’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의 전개를 미리 설명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 부분이었다. 먼저 ‘주제 안내’는 각 단원의 주제 설정의 이유와 학습 중점을 제시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주제 안내 설정에 있어 고려된 사항은 이전 제작된 독도 교재의 주요 내용의 핵심요소를 참조하여 현 교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을 대의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주제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독도 학습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지식과 기능의 능력을 증진 시키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활동은 심리적·사회적 요소와 학습자의 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교재의 ‘주제 목표’는 학습의 기본인 ‘지식’ 분야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학습의 목적에 따르는 종합적 활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태도’의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의 역량 균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영토 지식·문제 해결력·영토 의식·소통 협업’의 5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림 4〉 자기주도형 독도 교재의 구성과 특징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학생 스스로가 활용하여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즉 5개의 단원으로 설정된 새로운 독도 교재에서는 학생들의 독도 지식을 다시 확인하는 학습 활동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여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5〉 본문의 ‘학습 활동’ 사례

## IV. 교재의 한국사 학습 적용 및 평가

### 1. 교재의 학습 활동 적용

검토본으로 제작된 교재에 대한 현장 적합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2018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전○○고등학교 3학년 8개 반 학생(각 4개 반 - 남/여)을 대상으로 각 학급 총 4차시 구성의 50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는 〈표 5〉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수업은 학생들과 학습할 내용을 협의한 후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 교재 1단원인 ‘자손 대대로 이어질 독도’를 선택하였고, 8개 학급의 동일한 학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둠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에 대한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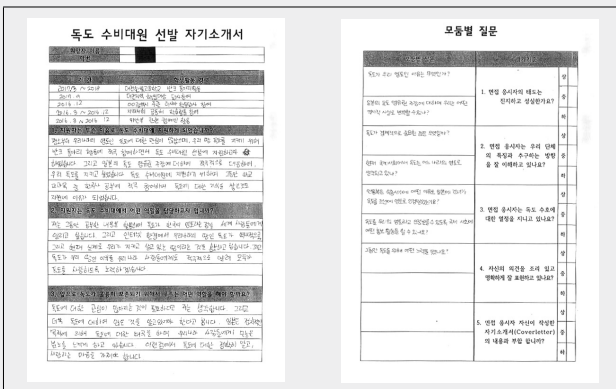
현장 적합도 검토 과정에서 1단원 학습 활동의 주안점은 그동안에 학습한 독도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지식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지리와 일반사회적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주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즉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지식과 함께 독도 수비대의 일원으로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적·일반사회적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와 질문지를 만들고, 이에 대한 발표와 응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지식과 독도의 소중함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의 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5) 1단원 교수-학습 활동의 과정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도의 역사에 대한 학습 활동을 모둠을 중심으로 진행</li> <li>시대를 중심으로 모둠별 과제 설정 및 학습 활동</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학습활동을 위한 모둠                      1모둠 : 고대국가와 독도                      2모둠 : 고려시대의 독도                      3모둠 : 조선시대의 독도                      4모둠 : 대한제국, 일제시대의 독도                      5모둠 : 대한민국의 독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지 자료와 정보 매체의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도 관련 시뮬레이션 상황 설정</li> <li>독도 수비대에 지원 하는 사람이 되어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만들기</li> <li>관련 내용에 부합하는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함</li> <li>1차시 조사 내용 공유</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자기 소개서 만들기                      자기 소개서 작성을 위한 시트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도 수비대원 모의 선발 시뮬레이션 설정</li> <li>▶ 자기소개서 중 가장 잘 된 2인을 선정하여 모의 면접을 실시</li> <li>▶ 각 모둠에서는 관련한 질문을 선정하여 해당 학생에게 질문</li> <li>▶ 면접 대상자가 나오지 않은 모둠에서는 협의를 하여 3인의 질문자를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li> <li>▶ 면접이 끝난 후 학생들과 토의를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도 관련 협의 내용 정리</li> <li>▶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li> <li>▶ 독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li> <li>▶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li> <li>• 홍보 문구를 만들고 각 모둠 별로 발표</li> </ul>
준비물	모둠별 스마트폰 사용 독도 관련 각종 서적	독도 관련 자료, 스마트폰, 자기소개서	선발 관련 질문지, 면접 준비물 (명패, 의자, 책상 등)	모둠별 스마트폰 사용 독도 관련 각종 서적 및 협의록
유의 사항	모둠 편성 이전에 구성원 간 충분한 아이스 브레이킹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자기 소개서 작성을 위한 시트는 독도의 역사와 학생의 의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 독도에 관련한 지식을 활용하여 면접을 위한 질문을 만들	활동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학생들의 다른 학습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함	제시된 주제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둠별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이행. 특히 활동에 소외가 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

교수-학습의 방법에서는 토의·토론 학습과 시뮬레이션 학습을 활용하였다. 이에 1차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탐구학습 활동과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2차시에는 독도 수비대 선발 면접 시뮬

레이션 학습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때에는 글쓰기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였다. 3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면접 시물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끝난 이후 선정 작업을 통하여 2명의 학생을 독도 수비대원 면접 응시자로 선발하고 3인의 학생 면접 심사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받은 면접 질문지를 바탕으로 독도 수비대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시물레이션을 학습 활동에 적용한 이유는 면접 자체가 학생들의 대입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이미 많은 연습 과정을 통해 익숙한 점이 많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4차시에는 앞선 학습 활동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도 홍보를 위한 홍보 문구(슬로건)’를 만들도록 하여 학생들이 독도의 소중함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학습 활동 과정 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질문지 사례

## 2. 적합도 여부 관련 수업 평가

자기 주도형 독도 교육 자료인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를 활용한 독도 수업은 과거 지식 전달 위주의 독도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의 능동적 학습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재 편성과 활용의 과정에서 다소 미약한 부분 또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업 진행 후에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회<sup>18</sup>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 10명과 수업에 참관한 교사 8명(사회과 교사)의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교재의 내용에 대하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 활동 중에 다루어지는 독도 관련 내용 및 정보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학습의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평가회 과정에서 한 학생은 그동안 독도 관련 학습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중학교 시절부터 독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수업 중에도 내용을 다룬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사회 교과목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른 교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설명을 간단히 하신 경우도 많고, 너무 내용 위주라 재미를 느낄 수 없어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학생은 실제 독도학습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업 중에 독도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 간단히 제시되거나, 단순히 독도에 대한 내용 전달에 초점을 두고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동적 형태가 주가 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결국 독도교육 있어서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과 활동을

18 평가회는 2018년 12월 4일 대전 ○○고등학교 3학년 8개반 학생 10명과 수업을 참관한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과 간, 혹은 학습 활동 간 연계학습 활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학생 중에는 정보 전달 위주의 학습 활동에 필요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견해는 독도 관련 영토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는 영토 소유의 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위적인 입장이 작용했다고 예상된다. 특히 이를 주장한 학생은 중학교에서부터 새 교재가 제공되기 이전까지의 기존 독도 교재에 대한 내용 파악이 효과적이었던 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생 중에는 모둠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이 주가 되는 자기주도형 교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재의 ‘학생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학생들이 앞서 경험한 독도 관련 내용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 그리고 독도 학습활동 자체가 단순히 지식이 아닌 정의적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 독도 교재는 다양한 독도 지식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특히 독도 교재가 역사·지리·일반사회의 교과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를 통합적·범교과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또한 교재 관련 디자인과 내용 편성에 있어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초·중·고등학교의 교재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재에 대해 교사들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재에 있어 내용의 구성과 학습 활동에 있어서의 학생 주도성의 장점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용이 3~4시간 정도로 수업을 구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학습 활동은 단순히 1~2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아이들이 별도의 준비를 거친 후 학생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 같아요. 축약된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학습 활동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교재는 앞선 교재에 비해 내용 전달의 기능은 축소하고 대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역량을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습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교재 활용에 있어 현실적인 수업 적용(예를 들어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도움 자료 등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보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 제시한 새로운 독도 교재의 개발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까지 1년여 동안 진행되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과 교육부 연구사 등이 모여 새로운 독도 교재를 만들고자 연구를 시작한 이래, 1년여의 연구 끝에 새로운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 교재를 제작되어, 2019년에는 전국 학교에 배부되었다.

특히 독도 교육 교재에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가장 큰 주안점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영토 의식 고양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서 교재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급별 교재 적용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교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학생 활동을 통해 ‘독도’ 학습이 지식이 아닌 독도라는 영토 지식을 다루는 기능적 측면과 영토 의식에 있어 독도를 대하는 태도 또한 매우 진지해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교재에 대해 일부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내용의 난이도 문제와

학생 활동에 있어서의 적용에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독도학습을 어떤 방향에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각 교과 별로 진행되는 독도 교육을 어떻게 융합하고 조화롭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교재를 정교화하는 과정속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재 개발을 학생 활동 중심의 융합형 교재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콘텐츠 개발을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독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유행 중인 COVID19 상황에서 경험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착안하여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상에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공간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 교재 개발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개발팀은 영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독도라는 하나의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 연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팀은 현 교육과정 내에서의 독도 교육의 학교 급 간의 연계 문제와 그 외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 다양한 연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독도 교재 개발에 적용하였다. 끝으로 으 로 향후 국가 정체성과 영토교육의 차원에서 다양한 영토교육의 방법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교육부.

\_\_\_\_\_, 2019,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고등학교)』, 교육부

김두진 외, 1996, 『고등학교 국사(하)』, 교육부.

김은희 외, 2018, 『독도 바로알기(초등 3·4학년군)』, 동북아역사재단.

남길수 외, 2018, 『고등학교 독도 체험 활동지』, 동북아역사재단.

박기범 외, 2019,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고등학교)』,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중학교)』,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초등 3·4학년)』,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들어 가는 독도(초등 5·6학년)』, 동북아역사재단.

양상진 외, 2017, 『독도 바로알기(중학교)』, 동북아역사재단.

역사교육연구회, 1961, 『중등 국사』, 문교부.

이만열 외, 1981, 『중학교 국사』, 문교부.

이명희 외, 2002,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양호환 외, 2002,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왕현중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

최몽룡 외, 1990, 『고등학교 국사(하)』, 문교부.

하현강 외, 1983, 『고등학교 국사(하)』, 문교부.

허준 외, 2017, 『독도 바로알기(고등학교), 개정2판』, 동북아역사재단.

황인영 외, 2017, 『독도 바로알기(초등학교), 개정2판』, 동북아역사재단.

김수희, 2013, 「초중고 역사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과 방향성 검토」, 『역사교육논집』 51, 한국역사교육학회.

김영수, 2018, 「일본 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동북아역사논총』 62,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대학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 242, 역사학회.

- 김영수, 2013,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14-1, 한국평화연구학회.
- , 2012,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3, 동북아역사재단.
- 김태형, 200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의 독도 영유권」, 『국제법학회논총』 52-3, 대한국제법학회.
- 김혜진·서태열, 2019, 「초등학교 실천적 독도교육 방향 모색」, 『학습자중심 교육학회지』 19-21, 학습자중심교육학회.
- 김호동, 2005,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화경·노상래, 2009,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50집.
- 남상구, 2016,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2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송호열, 2011, 「중학교 사회1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한국사진지리학회.
- 신범식·최용규, 2010, 「초·중등 역사교육과정 계열화 방안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17-1.
- 정병준, 2006,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渡部昇一 外, 2015, 『最新 一本史B (고등학교)』, 明成社.

<http://dokdo.mofa.go.kr>

<http://www.dokdo.go.kr>

<http://www.dokdohistory.com>

<http://www.dokdomuseum.go.kr>

<http://www.dokdo.re.kr>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도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적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독도 교육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사실을 위주로 지식 전달의 목적으로 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독도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되는 지식의 축적과 더불어 학생 스스로가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자각하고, 배운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를 통해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활용된 한국사 교과서와 학습 교재를 분석하여 독도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자기 주도형 내가 만드는 독도' 교재 개발을 진행하였다. 교재 개발 중에 필자는 독도 교육에 있어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 통합적 교재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구체적인 교재 제작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하였다. 특히 교재의 내용 구성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재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계속성과 계열성, 그리고 통합성에 원칙을 중심으로 독도 학습 활동에 적합한 교재 제작을 통해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한 교재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개발된 교재에 대한 한국사 학습에서의 적합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교재의 유용성과 향후 교재 개발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독도, 독도 교육, 독도 교재, 사회 교과 융합, 영토 주권, 독도 영유권.

## Abstract

A Study on A fusion materials production effective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Application of Classes for Dokdo education : Dokdo materials focusing on manufacturing experience and learning Korean history from the application of high school.

An, Wunho

(Teacher, Daejeon Hanvit Highschool)

The purpose of the study on Dokdo education for Dokdo education materials can be an effective development and for applying for me to check it out the room. So far, knowledge transfer to the facts about Dokdo education is to the Korean-controlled Dokdo islands in the activity for the purpose of learning often. But Dokdo, make a study i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on the basis of its sovereignty claims to Dokdo importance for the Dokdo yourself a student, along with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ware of Dokdo with useful knowledge that learn, is to recognise that our territory. Therefore, this writer is the study have been used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learning materials that have an analysis of the Dokdo with educational materials required for production oriented.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extbooks 'self-directed Dokdo, which I make'. Activity-oriented curriculum integration of a student in Dokdo education in developing textbook materials of the need for specific plans for materials production and use, and the recognition. Applied. The storylines of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 particular middle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 that can be maintained through the Dokdo with the principle of continuity and integrity, and the series of learning. Effective for Dokdo education materials for making the appropriate textbook can provide examples of. In addition, through th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o find out whether the developed textbooks are suitable for learning Korean history, the usefulness of the textbooks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course of future textbook development were confirmed.

### Key words

Dokdo, Education on the Korea-controlled Dokdo islands, Textbooks about Dokdo, Convergence of social education subjects, territorial sovereignty, Dokdo sovereignty.

